

# 司 救 研 究

제44집 (2020/여름)

교회법 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 발 간 사

코로나19로 인하여 ‘컨택’(Contact)에서 ‘언택’(Untact) 문화로 전환되는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대면’과 ‘모임’이라는 특징이 강한 전례와 성사 중심에서 ‘비대면’과 ‘개별’이라는 특징으로 하는 기도와 사랑 실천 중심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례와 성사생활을 잘하면 열심히 신자라고 자부하거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며 이제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성경과 교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법(Lex Credendi)은 전례와 성사라고 하는 기도의 법(Lex Orandi)으로 표현되며 교회법과 가톨릭 윤리라고 하는 생활의 법(Lex Vivendi)을 통해 실현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의 법인 교회법에 대해서 신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목자에게는 믿음을 전례에서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법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기에 사목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여름호에는 생활의 법을 드러내는 교회법 특징을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신도의 혼인에서 베드로 특전’ ‘성직자 신분’ ‘수도자의 공동생활’을 주제로 한 세 편의 교회법 관련 논문과 ‘선교지역을 담당하는 인류복음화성과 축성생활의 관계’를 주제로 한 번역문, 그리고 ‘생티어리 기욤의 저서 『묵상과 기도』에 대해 연구한 영성 관련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원가톨릭대학교 교회법 교수인 김의태 신부는 ‘한국교회 내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의 적용 가능성 연구’라는 약간은 긴 제목의 논문은 혼인에 관한 특전 중에서 베드로 특전이 무엇

이고, 어떠한 역사를 지니며, 어떠한 규범과 절차가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은전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고찰하였습니다. 아직도 선교지역인 한국 상황에서 비성사혼이 성사혼에 비해 많고, 이 혼율도 상승하여 혼인 해소를 위한 특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사목현장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느님과 교회에 무관심해지는 사회적 흐름으로 인하여 세례자라고 하더라도 혼인할 때 교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고 하느님 앞에서 혼인을 하기보다 사회의 경향을 따르는 젊은 신자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교구 소속으로 교회법 전공인 안병영 신부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직자를 신학적 의미보다는 교회법에서 규정한 ‘성직자 신분’이 되기 위한 유효하고 합법적인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교회법 제1029조) 신자에게 서품을 수여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각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직자는 어떤 삶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미리내 천주성삼 성직수도회 소속 이규용 신부는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이라는 논문 제목을 통해서 수도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도원을 불법적으로 떠나서 살아가는 수도자의 부재의 개념과 교회법적 처리 절차를 설명하면서, 2019년에 선포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로 교회법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고 절차에 대하여 고찰하였습니다. 수도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공동생활의 가치와 순명의 의미, 그리고 장상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논문입니다. 공동생활의 중요성은 꼭 수도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각 본당과 여러 특

수 사목분야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구사제들도 기본적인 공동생활의 가치와 규정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 사제와 함께 사는 것도 못하면서 신자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삼위이며 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의 일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수도자의 ‘공동생활’입니다.

이어서 이규용 신부는 인류복음화성 사무관이며 교회법 위원회 위원인 카를로 파브리스 몬시뇰의 소논문 ‘인류복음화성과 선교 지역의 축성생활’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인류복음화성이 외방 선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과의 협력 관계를 ‘위탁’(commissione)이라 불리는 법적 제도 혹은 체제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특히 ‘위탁’ 제도를 통하여 선교 지역에서의 ‘교회 설립’(plantatio ecclesiae)에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탁월한 기여를 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인류복음화성이 현존하고 활동하는 독특한 인적 및 물적 정황을 이유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황들로부터 인류복음화성에 수여된 특별권한들의 체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선교활동을 한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의 기여를 떠올리게 하며 인류복음화성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소논문입니다.

생티어리 기욤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영성신학자인 정태영 신부는 “생티어리 기욤의 『묵상과 기도』 안에서 ‘함께-마음속에서-떠오르는’ 것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생티어리 기욤의 거룩한 독서(聖讀)의 기본 원리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기욤의 『묵상과 기도』은 기도의 초심자들을 위해 집필된 것으로 시편기도와 성경묵상의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고요히 기도하며 ‘함께-마음속에서-떠오르는’ 다른 성경 본문들과 자기 삶 속의 기억들을 12단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룩한 독서의 전통적 과정인 읽기(lectio)-묵상(meditatio)-기도(oratio)-관상(contemplatio) 중에서 묵상과 기도를 보다 깊이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례와 성사생활 보다는 일상

에서의 기도생활이 강조되는 시기에 기욤의 『묵상과 기도』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을 보다 깊게 만나고 삶을 성찰하게 좋은 안내서라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호에는 현재 한국에서 1인 가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맞춘 ‘1인 문화’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상황과 사목적 배려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 司牧研究 제44집 — 교회법 편 2020 여름

### 차 례

발간사/ 3 윤종식

#### [특집] 교회법

한국교회 내 신앙의 특전을 통한 혼인유대 해소의 적용 가능성 연구/ 9 김의태  
 성직자 신분/ 45 안병영  
 수도자의 불법적 부재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공동생활」(Communis vita)/ 79 이규용  
 인류복음화성과 선교 지역의 축성생활/ 131 카를로 파브리스, 이규용 옮김

#### [논단]

생티어리 기욤의 『묵상과 기도』 안에서  
 ‘함께-마음속에-떠오르는’ 것에 관한 연구/ 159 정태영

#### [부록] 205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207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13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16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18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20  
 司牧研究 총목차(1994-2019 겨울)/ 222

## Contents

---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ungsik, S.L.D.*

[Special Issue] Canon Law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Dissolution of Marriage 'in Favorem Fidei'/ 9  
*Rev. Kim, Euitae, J.C.D.*

The Clerical State / 45 *Rev. Ahn, Byeongyoung, J.C.D.*

The Illegitimately Absent Religious and  
 Motu Proprio *Communis Vita* of Pope Francis / 79  
*Rev. Lee, Gyuyong, J.C.L.*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Peoples and  
 the Consecrated Life in the Mission Territories/ 131  
*Carlo Fabris*  
*tr. by Rev. Lee, Gyuyong, J.C.L.*

[Articles]

Study of 'Con-cord-ance' Phenomenon in  
*Oratio Meditativa* Written by Guillaume de St. Thierry/ 159  
*Rev. Jeung, Taeyoung, Ph.D.*

[Appendixes] 205